

“경찰 불러 주세요” 애원한 강도

사람들을 위협해 스마트폰을 빼앗는 강도가 오히려 경찰을 불러달라고 애원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강도는 지난 5일 저녁 8시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인근 지역 자카레파구아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한 20대 여성에게 다가갔다. 그는 이것저것 묻는 척하면서 여성에게 바짝 접근한 “스마트폰을 넘겨! 총이 있으니 움직이지 마!” 라고 위협했다.

평소대로면 스마트폰을 쉽게 빼앗을 수 있었다. 권총 모양으로 자른 골판지를 몸에 대기만 해도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 미모의 이 여성은 권총 위협에도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 틈을 보고 있다가 번개처럼 펀치 두 방을 강도의 얼굴에 날렸다. 그리고 강도를 세계 걸어차다. 여성은 강도의 움직임을 완전히 제압했다. UFC 여성 스트로급 파이터 폴리아나 비아나(26, 브라질, 왼쪽 사진)는 그렇게 강도를 경찰에 넘겼다.

비아나는 총 전적 10승 2패의 종합격투기 파이터로, 지난해 2월 UFC와 계약해 옥타곤에서 1승 1패 성적을 거뒀다. 피니시율 100%다. 10승 중 4번을 KO로, 6번을 서브미션으로 끝냈다. 이날도 확실한 결정력으로 강도의 기를 꺾어 놓았다.

강도는 초범이 아니었다. 얼마 전 풀려난 전과자였



다. 비아나를 연약한 먹잇감 정도로 여긴 강도는 제대로 교훈을 얻었다.

비아나가 브라질 벨렝에서 살 때도 오토바이 강도를 당한 적이 있다. 당시 두 명의 강도가 그를 덮쳤다. 한 명은 오토바이를 타고 기다렸고, 한 명이 비아나의 스마트폰을 빼앗으려고 했다. 이때도 비아나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왔다. “사실 나도 겁이 많이 났지만, 상대들이 나보다 더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결국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고 말했다.

이번에 두 번째로 강도를 물리친 비아나는 “다행히 강도가 크게 놀라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강도는 내가 더 때릴까 봐 결국 ‘경찰을 불러 달라’고 애원했다.” 고 밝혔다.

14년 식물인간 여성 출산 ‘충격’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14년 동안이나 식물인간 상태였던 여성 환자가 출산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5일 CBS에 따르면 이 여성은 물에 빠지는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지난해 12월 29일 피닉스에 있는 하시엔다 요양원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으로 직원에게 발견됐다.

한 직원은 “그녀가 (진통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지 알지 못했다.” 고 전했다. 산모와 아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요양원 직원들은 출산 직전까지 여성의 임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24시간 내내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해 많은 사람이 그의 병실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딸 아이는 그렇다, 아니다의 표현을 할 수 있다.”며 “비록 걷거나 말하진 못하지만, 분명히 (상황을) 이해한다.”며 분노했다.

의사들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누군가가 성적 학대를 가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운영한 지 50년이 넘는 하시엔다 요양원은 노인, 아동 환자가 많은 곳으로, 이번 사건 후 여성 환자 방에 출입하는 남성 직원들은 반드시 여성 직원과 함께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병원 이사회측은 병원 최고 경영자(CEO)인 빌 티몬스의 사임안을 통과시켰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여성이 성적인 학대로 임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피의자를 찾아내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스포츠 게임에 뛰어든 노인들



컴퓨터 앞에 앉아 헤드셋을 통해 소통하고, 현란한 손놀림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들기면서 평균 은퇴 나이가 25세일 정도인 e스포츠계에 뛰어든 노인들이 있다.

지난 4일 CNN은 최고령 e스포츠 게임단인 스웨덴의 ‘실버 스나이퍼즈’ (Silver Snipers)를 소개했다. 노인들을 지칭하는 ‘실버’와 총을 겨누고 싸우는 게임 ‘카운터 스트라이크(카스)’에서 쓰이는 스나이퍼 캐릭터에서 따온 이름이다. 팀원 5명의 평균 연령은 67세. 최고령자는 75세이다. 2017년 창단해 IT업체 레노보의 후원을 받아 지난해 가을 처음으로 세계 투어에 나섰다.

이들이 취미 삼아 게임을 대충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시합을 위해 이들은 하루 수시간 게임 연습에 매진한다. 부족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허리 운동, 약력 운동 등을 비롯해 복싱까지 체계적인 관리도 받는다.

멤버당 승률은 2~15%. 아직은 초심자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카스 우승 10회에 빛나는 토미 잉게마르손(38) 코치의 지도 아래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고 있다.

멤버들이 게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다양하다. 손자들이 더 친해지고 싶어서, 내면에 쌓인 분노를 풀고 싶어서,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등의 이유로 모였다. 딸이 자살을 택한 이후 치료의 일환으로 게임을 시작한 이도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 재밌는 걸 찾아보자는 의미였다.

실버 스나이퍼즈 멤버인 잉거 그룻블라드(66·여)씨는 직접 게임을 해보기 전에는 여느 부모처럼 어린 친구들이 집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하는 게 게임이라고 여겼었다. 그녀는 이제 “e스포츠는 사랑스러운 커뮤니티”라고 말한다. 노인이 귀찮은 존재, 피하는 존재가 아닌, 이제는 환영받는 존재로 변했다는 게 이유이다. 그는 “손자도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 쿨한 할머니라며 따른다.” 고 말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